

# “반갑습니다” 포옹 대신 가벼운 악수만...

## ■盧대통령-金위원장 차분한 첫 만남

### 김위원장 시종 무표정...차량 동승 없어 5분전 환영식장 나와 盧대통령 기다려

10월2일 낮 12시. 평양 Moranbong 구역의 4·25문화회관 광장.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남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평양시민들의 환호와 함께 나란히 무개차에 탑 채 광장에 진입했다. 광장에서는 5분 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천천히 차에서 내린 뒤 10m 정도를 걸어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 남과 북의 정상이 7년 여만에 다시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날 공식 환영 행사에 '예고없이' 나타나 노 대통령을 직접 영접함으로써 최고의 의전을 재연했다. 김 위원장의 '깜짝 영접'은 1시간 전에 우리 측에 통보됐을 정도로 비밀리에 준비됐다.

7년 전과 같은 뜨거운 포옹이나 환한 웃음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벅찬 장면이었다. 두 정상은 얼은 미소를 띠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권양숙 여사

와도 악수를 나눴다. 이어 두 정상은 문화회관 광장에 깔린 붉은색 카펫을 밟으며 나란히 북한 육·해·공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2000년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군악이나 축포는 없었으며 사열 내내 두 정상의 표정은 약간 굳어 있는 느낌이었다.

노 대통령은 북측 전회정 김정일위원장 의전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김 영일 내각 총리, 강석주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인사 21명과 인사를 나눴다. 그때서야 노 대통령의 얼굴은 다소 파졌지만 김위원장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볼 뿐 얼굴을 이렇다 할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북측 여성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높이 들어 평양시민들의 환영 환성에 화답했고 시민들의 ‘만세’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김정일 위원장도 남측 공식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대북 특사로 방북했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는 몇 마디 말을 주

고받는 등 친근함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수행원은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모두 고개를 약간씩 숙였지만 김장수 국방장관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도 목격됐다.

환영인파의 행렬 끝에 도착한 두 정상은 12시11분께 다시 악수를 나눈 뒤 각각 다른 차에 올랐다. 2000년 정상회담 때와 같은 ‘깜짝 동승’이 연출되지는 않은 것이다.

한 당국자는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이슈였던 2000년 정상회담 때에 비해서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회담이 실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노 대통령 영접은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국민 영접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직접 영접한 인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과 후진타오 현 중국 국가주석 등 4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절제됐지만 극진한 환영을 한 것이라는 평가여서 이번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정후식기자 who@



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2007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며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 “자꾸 오가다 보면 이 선도 지워질 것”

### 盧대통령 금단의 선 넘는 순간

2일 오전 9시1분 군사분계선(MDL)을 30m 앞두고 전용차에서 내린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에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뒤흔어낸 긴장감이 역력했다.

문제인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배웅 나온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노 대통령은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띠 채 권양숙 여사와 나란히 군사분계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분계선을 10m쯤 앞두고 노 대통령은 남북 인사말을 전하기 위해 돌아섰다.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죠”라며 여유를 보인 노 대통령은 “오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가슴이 무척 설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심경이 착잡합니다”라고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여기 있는 이 선(MDL)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라며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간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이다.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손을 흔들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노 대통령은 다시 뒤로 돌아 북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했다.

열 걸음쯤 떼었을까. 원래 아무 표식도 없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노란 선으로 그어놓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노 대통령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다가 살다니 성큼 넘어섰다.

그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았던 ‘금단의 선’을 통일과 평화의 희망을 안고 지나간 순간, 노 대통령이 차고 있는 개성공단 산 시계는 9시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밝은 얼굴로 북측 영접인사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북측 여성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곧 스스로 긴장을 풀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꽃다발 주셨어요.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죠”라고 청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노 대통령은 9시9분께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손을 흔들 뒤 전용차에 올라 개성으로 향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어 남북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굳건하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

1948년 4월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며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8선을 넘을 때도 이 육로를 이용했다. /공동취재단

## 4시간도 안 걸렸다 청와대서 평양까지 단숨에

### 수해 파손 고속도로 말끔하게 보수 군사분계선 넘는 순간 전세계 방영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난지 4시간도 걸리지 않아 단숨에 분단의 벽을 넘어 북으로 평양까지 내달렸다.

노 대통령은 2일 오전 7시 55분께 전용차인 벤츠 S600을 타고 청와대를 출발, 자유로를 거쳐 통일대교를 넘어 조용한 아침 출근길을 달렸다.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진으로 구성된 공식수행원 13명도 다른 승용차편으로 동행했다.

민통선 마을인 통일촌 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 등 700여명은 오전 8시 40분께 대통령 일행이 통일대교 남단에 들어서자 도로 양쪽에 길게 늘어서 태극기와 풍선을 흔들며 환송했다.

출발에 앞서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10여분 간의 간담회를 한 뒤 5분간 방북에 앞선 ‘대국민 인사’를 했다.

노 대통령은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지나 청와대를 출발한 지 한시간 만에 군사분계선(MDL)

에 도착했다. 군사분계선 앞 약 30m 지점에서 내린 노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MDL 바로 앞에서 소감을 밝힌 뒤 분계선을 넘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방전의 상징이자 한반도 분단의 현실인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방북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 역사적인 장면은 TV로 생중계됐고 CNN 등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군사분계선 너머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장과 최룡해 황해북도 당책임비서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 대통령 일행은 북측 CIQ를 그대로 통과해 왕복 4차선 160km에 달하는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북쪽 산하를 보면서 달렸다. 지난 여름 수해로 일부 파손됐던 개성-평양 고속도로는 말끔히 보수돼 있었다.

개성을 출발해 70km 정도를 가면 나오는 황해북도 서흥군 수곡휴게소에서 20여분 간 휴식을 취한 대통령 일행은 평양 시내 통일이 거리와 충성의 다리로 대동강을 건너 공식 환영행사가 열리는 4.25문화회관 광장에 낮 12시께 도착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www.impeung.com